

Air Products, 삼성 반도체가스 공급

삼성전자 탕정 공장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 ... NO₂ 및 NF₃ 수요 기대

Air Products & Chemicals이 국내 탕정에 건설중인 삼성전자의 최신 TFT-LCD 공장에 파이프라인으로 N₂, O₂, NF₃, NH₃, Ar, SiH₄, H₂, Helium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LCD 공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대량의 산업용 가스를 요구하는데, Air Products는 탕정의 첫번째 공장에 단독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N₂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형적인 반도체 팹(Fab) 소비량의 약 5배에서 8배까지의 양의 N₂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NF₃ 수요는 일반적인 반도체 팹과 비교할 때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의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해 Air Products는 탕정에 2개의 새 플랜트를 건설중으로, 첫번째 공장은 A410/L400 Air Separation Unit(ASU)와 액화기이며 2004년 여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05년 완공 예정인 두번째 플랜트는 이미 기흥과 천안의 삼성전자 공급용으로 가동중인 Air products 플랜트들과 동일한 추가 설비이며, Air Products는 향후 건설 계획인 삼성전자 LCD팹에 공급을 위해 제3의 플랜트를 위한 탕정 부지를 할당해 놓았다.

Air Products의 Electronics 사업부 Michael Hilton 부사장은 “아시아에서 Electronics 사업, 특별히 specialty chemical 사업을 강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왔으며, 삼성전자와의 계약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렉트로닉스 고객들에게 가스와 공정용 케미칼을 제공하는 Air Products의 능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Air Products의 Electronics 사업부는 아시아에서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9개 아시아 국가에 44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shland Electronics Chemical Business를 합병했다. Air Products의 Electronics 사업부는 10억달러 이상의 매출로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Air Products는 전세계 기술개발, 에너지, 헬스케어 및 산업시장의 고객들에게 산업용 가스, 공정용가스 특수가스, 특수첨가제, 화학 중간체 등의 제품,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940년에 설립 이래 반도체 원재료, 정제 수소, 헬스케어, 천연액화가스, 첨단 코팅 및 접착제 같은 주요 성장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이끌어 왔으며, 한해 63억달러의 매출과 30개국 이상의 현지생산에 1만8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20>